

2018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여자중학교



2019. 1

두 번째 이화봉사단 활동이라 떨리거나 긴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멘티들을 만나는 것은 처음만큼이나 설레고 떨렸다. 특히, 여중 친구들을 만나는 만큼 알려주고 싶은 것도 더 많았고, 프로그램 준비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순수하고 생각이 깊어서 놀랐고, 저번 하계 이화봉사단에서 느꼈던 것과 같이, 많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시작하였는데, 오히려 함께한 팀원 친구들과 멘티들로 인해 많은 것을 얻게 되는 활동이 된 것 같다. 사실 교사를 꿈꾸며 시작한 교육봉사활동이지만, 저번에 다녀온 초등학교 교육봉사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고 지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더 성장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스스로도 뿌듯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화봉사단 활동을 2번하며 느낀 것은, 역시 이 활동은 함께하는 단원들과의 협력과 팀워크가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팀원들을 만나 봉사활동에 가서까지도 항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회의하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기억에 남을 시간들을 보낸 것 같다. 정말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 될 시간들이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화봉사단을 계속해서 신청하여 다녀오고 싶다.

출발 전부터 설레고 긴장되는 봉사활동이었다. 오랜만의 봉사활동이기도 하고 새로 만나는 멘티들이라서 더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예상 인원보다 훨씬 적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오히려 멘티들이 적어서 멘티들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지고 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다들 서툴고 어색했지만 준비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풀어가고 멘티들과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던 분위기가 아직도 기억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하게 프로그램에 따라오는 멘티들도 있었고 말로 표현하는 멘티들도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모두가 고맙고 열심히 임해줘서 나도 뿌듯함을 느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기에 멘티들이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이 나에게 너무 뜻깊고 즐거웠다. 밤마다 다음날 프로그램을 멘토들과 회의하고 연습해보는 과정도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다소 피곤하더라도 그 자체가 즐겁고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다. 내가 멘토로서 멘티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멘티들을 통해 내가 배운 점도 많았다.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의 태도나 봉사의 행복함을 멘티들과 활동하며 느낄 수 있었다.

처음 해보는 유형의 봉사활동이었기에 준비하는 과정도 낯설었고, 기관에 가서도 시행착오가 많았었다. 나름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고, 프로그램 준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처음 이틀간은 너무 힘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봉사단은 내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팀원들과 열심히 토의하고 준비하던 경험들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함께 장난도 곧잘 치던 멘티들과,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의 기분 등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사실 자잘한 문제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지어 모두 좋은 팀원들과 함께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나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어떤 태도와 생각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의견이 충돌하거나 모르는 것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기회였다. 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직업인지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활동이었다. 정말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을 것을 갖추고 성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중학교로 이화봉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우리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던 학교와 기관, 재단에게 모두 감사하며 그 누구보다도 함께 열심히 참여한 팀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우리를 잘 따라와준 멘티들에게도 너무 고맙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정말 보람 있는 이화봉사단 활동이었다.

3주간의 인도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아이들과 만나러 서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을 떠올리며, 사춘기를 버텨나갈 친구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친구들은 우리를 어색해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약간은 서먹한 분위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는 알게 모르게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둘째 날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으면서, 셋째 날 같이 스스럼없이 독서 토론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 공감도 해주면서.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처럼 다가가기보다는 친구처럼, 언니처럼 다가가는게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페미니즘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 말고 언니라고 부르라고 했더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는 채 두 시간동안 열심히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아이들도 자신이 성차별을, 가부장제를 체감했던 순간을 열심히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외모 걱정, 친구 걱정, 진로 걱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봉사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를 힘들게 했던 친구관계에 대한 이야기,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만큼 도움이 되었는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4박 5일이 너무 짧았던 건지, 잘 지내고 있던 친구들에게 괜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친구라도 저의 존재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이 봉사활동에 만족합니다. 이런 활동을 지원해주신 장학재단, 이화여대에 감사드리고, 함께 4박 5일동안 동고동락했던 팀원들과 잘 따라와 준 멘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